

PA-18

일반메밀과 쓴메밀 유전자원 특성

최주영¹, 주영환¹, 윤성현¹, 권수정¹, 우선희^{1*}

¹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서론]

메밀은 우리나라의 고유작물로서 자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량성 증대를 위한 육종과 생리생태 및 재배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최근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가 벼를 중심으로 많이 진전하고 있으나, 메밀 고기능성 및 고품질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메밀은 우리나라 자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량성 증대를 위한 육종과 생리생태 및 재배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메밀의 고기능성 및 고품질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일반메밀과 쓴메밀 유전자원의 주요 농업형질을 조사하여 재배기술의 확립과 새로운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20년도에 메밀 50자원을 수집하여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유전자원 포장에서 재배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식거리는 15 X 20cm로 하며, 쓴메밀을 제외한 일반메밀은 망실재배 하였다. 파종은 일반메밀은 4월 26일, 쓴메밀은 8월 23일에 줄뿌림하였으며, 발아 1주 후 1주 1본씩 남기고 솟아주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메밀, 쓴메밀 모두 초기생육이 50%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반메밀, 쓴메밀에서 초기생육이 불량한 자원은 관찰되지 않았다. 개화기는 일반메밀은 4월 말에 파종하여 5월 30일~7월 30일까지 개화하였으며, 쓴메밀은 8월 말에 파종하여 9월 초, 10월 중순에 개화하였다. 일반메밀과 쓴메밀은 처음 개화가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까지 약 50일 후에 개화기를 나타내었다. 메밀의 엽색에는 연한녹색, 녹색, 진한녹색을 띠었으며 특히, 일반메밀은 녹색, 진한녹색이 쓴메밀은 진한녹색이 많이 관찰되었다. 일반메밀과 쓴메밀의 줄기색을 연녹색, 연홍색, 홍색, 진홍색, 기타, 혼립으로 조사를 하였다. 줄기색은 일반메밀, 쓴메밀 모두 연녹색, 연홍색, 홍색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연녹색을 많이 나타냈다. 일반메밀의 종피색은 진갈색이, 쓴메밀은 진갈색, 검은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메밀, 쓴메밀은 개화기에 가까워질수록 줄기색이 연녹색에서 홍색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꽃색은 대부분 흰색이었다.

[사사]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No. PJ015837202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woo@chungbuk.ac.kr Tel. +82-43-261-2515